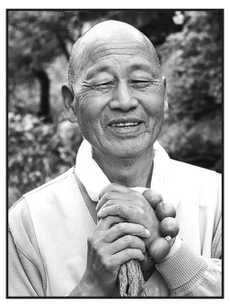
함양 서암정사 회주 원응 스님 원적

법랍 66세로, 석암문도장 엄수



경남 함양 서암정사 회주 원응 스님〈사진〉이 8월 15일 세수 84세, 법랍 66세로 원적에 들었다. 원응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은 8월 19일 서암정사에서 석암문도장으로 봉행됐다.

원응 스님은 부산 선암사에서 석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전국의 제방에서 참선공부에 매진했으며, 1961년 지리산 벽송사에서 도량을 중창하고 1985년 서암정사를 창건했다.

스님은 서암정사를 건립하면서 〈대방광불화엄경〉 80권본을 금니로 사경하겠다는 서원을 세웠으며 금니로 사경하기 전, 먹으로 〈금강경〉을 120번, 〈대방광불화엄경〉 80권본을 사경했다.

스님은 '사경할 때의 그 마음이 바로 화두 드는 그 경계와 다를 바가 없음'을 강조, 사경통선(寫經通禪)을 널리 알렸다. 특히 화엄경 금니사경 전시회를 한국과 대만에서 여러 차례 열었다.

원응 스님은 "밝고 밝은 신령한 근원의 본체는 고요하며 머무는 바가 없도다. 자체는 형색도 없으니 인연 따라 온갖 것을 알 뿐이니라"는 열반송을 남겼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승려노후복지 앞장서는 영천 포산 승가원 개원

원룸형식 방 11개와 법당 갖춰

제주도 약천사 주지 덕조 스님은 8월 21일 영천시 임고면 우학리에 '포산 승가원'을 건립하고 개원법회와 현판식을 봉행했다.

개원법회에는 조계종 제10교구 은해사 박물관장 돈명스님과 약천사 주지 덕조 스님, 은해사 국장단 스님과 문도 스님, 은해사 및 약천사 신도회, 지역기관 단체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포산 승가원은 대지 500여 평에 지상 3층 건물로 욕실, 싱크대, 서장 등이 딸린 원룸 형식으로 구성된 방 11개와 법당, 공양소, 옥외 사용 건축물로 지어졌다.

약천사 주지 덕조 스님은 "조계종단 스님들의 노후문제 해결이 늘 화두였다. 그 결과 더욱 열심히 수행정진해 승가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머물 곳이 마땅치 않은 조계종단의 노스님들을 무료로 모실 계획이다. 앞으로 승가복지에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사전 연명의료계획 존엄한 죽음 대비를"

Interview

노숙령 불교여성개발원장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계 유일 서울 등록기관
17명 상담사 배출, 등록 시작
"웰다잉 인식 변화 주도할 것"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개인이 직접 준비할 수 있는 권리를 표현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계는 홍보가 부족해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불교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서울지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중 하나로 선정됐다. 서울지역 불교계 기관으로는 유일하다. 불교여성개발원은 개발원 내 생명존중운동본부를 두고 5월 2월 상담사 등록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17명의 상담사를 배출해 국립기관에 등록해 활동하며 총 133명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받았다.

노숙령 원장은 8월 20일 기자간담회서 "일선 병원에서의 연명치료 과정에서 삶의 질은 좋지 않으며 목숨만 연장하는 사례가 많다. 가족들은 효심이 부족하다 등 지탄으로 환자의 결정이 없으면 연명의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면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택하기보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주변을 정리하고, 아름답고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 올지 모르는 죽음에 대비해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권리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숙령 원장은 이어 "그동안 불교계가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활발히 펼쳤지만 말기환자를 상대로 한 호스피스, 임종 포교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다"며 "앞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과 보급을 통해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웰다잉 문화를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노숙령 원장은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해 일선 사찰을 비롯해 불교계가 앞장서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현재 생명존중운동본부(초대 본부장 임정애)를 두고 활발한 웰다잉 교육 및 호스피스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노숙령 원장은 "불교는 스스로의 마음을 닦는 공부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공부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불교계 기관 간의 유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 원장은 끝으로 죽음에 대한 인식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 원장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말고 함께 얘기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짓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불자들이 상담사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로서도 이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체계를 다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대학홍보협의회 제21대 출범

8월 17일 동국대서 "협의회 3.0시대 연다"



한국대학홍보협의회 제21대 집행부가 출범식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한국대학홍보협의회(회장 변재덕 · 동국대 홍보실장)는 8월 17일 오후 3시 동국대 서울캠퍼스 본관 로터스홀에서 제21대 집행부 출범식 및 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경과보고, 참석자 소개, 회장교인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의 환영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1년간 협의회를 위해 활동한 김대영 전임회장과 변재덕 전임 총무이사는 협의회의 활발한 정보교류와 친선교류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았다.

새 집행부 구성은 △회장 동국대 변재덕 △부회장 동덕여대 이은경, 성결대 송주광, 코리아텍 황의택, 송원대 박지호, 금오공대 정재훈, 울산대 박동순 △감사 가톨릭관동대 이진용, 유니스트 장준용 △총무이사 극동대 임동현 △이사 국민대 이용근, 숙명여대 최수연, 한양대 권경복, 한남대 전성우, 전북대 송양희, 동의대 최봉진 등이다.

변재덕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친선교류와 정보교류가 협의회의 1.0시대와 2.0시대였다면 이제는 3.0시대를 준비할 때"라며 "대학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만큼 소신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할 말은 하고, 사회적 공헌 활동도 모색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한국대학홍보협의회는 지난 1997년 설립된 이후로 현재 전국의 200여개 4년제 대학 홍보 담당자들이 대학홍보업무와 관련해 정보교류와 공동방안을 함께 연구, 개발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청도 운문사, 칠성도 일반에 공개

8월 17일 봉안식… "원형 잘 보존돼"



청도 운문사(주지 진광)는 8월 17일 경내 만세루에서 운문사 칠성여래도 봉안식을 봉행하고, 칠성도를 일반에 공개했다. 운문사 측은 "칠성도 본래 자리인 칠성각에 자리를 마련했다. 손상 없이 대체로 원형이 잘 보존돼 있다"고 밝혔다. 이 칠성도는 지난 3월 미국 뉴욕서 열린 경매에서 조계종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운문사가 낙찰 받아 국내로 돌아왔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삼광사, 지역아동 위한 보시행

아동센터 행사에 밥차 지원 등 펼쳐



천태종복지재단 부산지부 삼광사(주지 세운)는 IBK기업은행 후원으로 사랑의 밥차 무료급식을 8월 21일 '제6회 지역아동센터의 날' 행사에 지원했다. 이날 삼광사는 행사에 참여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에게 빵 600개를, 지역아동센터에 자비의 쌀 2,000kg을 전달했다. 김지원 수습기자

동국장학회, 후배사랑 장학금 수여

52명 학생에게 총 1억400만원



재단법인 동국장학회(이사장 전순표)는 8월 21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본관 로터스홀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는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전순표 동국장학회 이사장, 전영화 동국대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학기는 서울캠퍼스 35명 · 경주캠퍼스 17명 등 총 52명의 학생에게 1인당 200만원씩 총 1억4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신성민 기자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